

가정예배 순서

인도자 : 가족중

추석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찬 송 559장 다 같 이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신명기 8:11~18 인 도 자

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
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사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
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
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나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인 도 자
주기도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아멘 -

-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

곡식은 농부의 수고로 자라지만, 햇빛과 비와 바람은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써 살아왔지만, 그 수고가 열매가 되도록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감사하라” 는 말씀에 앞서 “기억하라” 고 권면합니
다. 감사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 지나온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곳은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배운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오늘까
지 인도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컸습니다.

2.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신 8:17)

건강과 일터, 재능과 가족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익숙해서 잊고 살았
을 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억지로 찾는 일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일입니다.

3. 복을 주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 8:18)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 쌓아 두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으로 가족을 품고, 받은 위로로 이웃을 위로하며, 받은 것을 기쁨으로 나
누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이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통로임을 압니다.

이번 추석에는 열매만 헤아리지 말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나
온 길의 인도하심, 오늘을 살게 하신 채우심, 이웃과 나누게 하신 복의 사명을 기
억합시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보다,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고백하
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추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59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통 305)

전영택(1894-1968)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

가정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시 112:1-2)

임마누엘 가정 : 10.10.10.10.REF.

보통으로

구두화, 1967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 고 하나님 아버지 모 션으 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 고 동기들 사랑에 뭉 처 잇 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 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 가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 다 우리 집 줄거운 동산이 라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 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라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 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라



고마워 라 임마누 엘 예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라 임마누 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 루

2026년 축식

가정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제일교회